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호스피스 교육 특강  
정무근 신부(예수회/C.P.E. Supervisor)

## 주제: 삶을 돌보는 죽음

----- 삶/고통 -----  
[  
탄생(생명) ----- 의미/희망 ----- 죽음(의미/희망)

### 1. 삶

#### (1) 사랑으로 축복 받은 생명; 창세기 2; 4-7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구절’

-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입김)’과 결합되어 있고 늘 함께 있다는 표현으로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분리 될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이다.

\* 이처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위의 성서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 그 자체인데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얼마나 축복 받은 것이겠는가?

#### (2) 생명에 ‘의미’가 부여된 삶; 모세의 이야기 - 출애굽기1 - 3

일단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인간의 삶은 그 생명  
때문에 가치로운 것이며 의미가 있는 것이다.’

- ‘버려진 아이의 삶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모든 인간의 삶에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

다’

### (3) 생명에 희망이 부여된 삶; 새옹지마,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순간들 즉,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힘들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을 먹기도 한다.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만 하는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2. 고통

인간의 삶과 죽음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고통을 빼다면 ‘**바람 빠진 풍선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과 늘 함께 붙어 다니면서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한다.

### (1) 고통의 정의;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경험**으로서 독특한 개인적인 특성이 있으며 시간, 공간의 영향에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적인 요인,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및 외부 환경,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관련된 상실, 훼손, 통증이 자아의 완전성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될 때 경험되는 **견디기 힘든 극심한 괴로움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 고통현상을 이루는 요소에는 슬픔, 우울, 절망감, 비참함, 죄책감, 위축감, 무력감, 두려움, 불안, 분노 등이 있다.

### (2) 고통에 의미를 부여했던 욱의 삶; 욱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 인간에게 그 많은 비참한 고통들을 있게 하시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특히 우리는 환자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거의 매일 듣는다. 사실 이것은 아무도 정답을 말 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딛고 극복했을 때는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와 가치를 주었다

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논할 때 고통자체만을 보지 말고 고통안에 담겨있는 의미인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아야하지 않을까? 욥의 고통의 여정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 (3) 고통 중에 삶의 희망을 되찾았던 토비트 가족; 토비트서

토비트서에 나오는 토비트와 그의 아내 안나, 그의 아들 토비아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가 된 사라와 그의 아버지 라구엘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돌보고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 3. 죽음

인간이면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은 ‘어둡고, 희망이 없으며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빼놓을 수 없듯이 인간의 운명인 죽음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둡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태’로 여기는 이유는 ‘죽음 또한 나름대로의 의미와 희망이 있음’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 (1) 죽음의 정의;

의학적으로 죽음의 정의는 ‘심장기능 및 호흡기능과 뇌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을 말한다. 즉 심, 폐, 뇌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정의는 그 이상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이별시키는 잔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남겨지는 가족들에게는 ‘절망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 (2) 남겨진 이들에게 의미와 희망을 안겨다 주는 죽음; 모세의 죽음

모세에게 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위한 하느님 축복의 의미였으며 하느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끝까지 돌보리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한편, 모세로부터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후손들에게도 모세의 죽음은 ‘어두운 희망의 끝’이 아니라 ‘그 동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느님 사랑의 상징’ 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사랑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 (3) 죽음에 또 하나의 희망을 부여하는 종교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종교는 이러한 질문에 ‘희망’을 줌으로써 대답을 하려고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죽음은 최종적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되는 순간’ 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진리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도 다시 만난다’ 는 희망을 가진다. 이러한 희망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죽음이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약속의 순간’ 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가진 가톨릭 의료진/봉사자로서 임종환자와 그 가족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종환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죽음’이 ‘어두운 희망의 끝’이 아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 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